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

2019년 9월 11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9.10.(화) 오후 20:30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9. 9. 10.(화)	담당부서	원전수출진흥과
담당과장	김 진 과장(044-203-5330)	담 당 자	박혜영 사무관(044-203-5336)

한-아랍에미리트 제3국 원전시장 공동진출 협력 양해각서 체결

- 양국간 원전 전주기 협력을 전세계 원전시장으로 확대키로 -

□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의 세계에너지총회(WEC) 참석 계기에, 한-아랍에미리트(UAE) 원전업계 간 **제3국 원전사업 공동진출을 위한 협력 양해각서(MOU)를 체결**하였다.

* 세계에너지총회(World Energy Congress) : 9.9~9.12,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

○ '19.9.10일(화) 아부다비컨벤션센터(ADNEC)에서 정승일 산업부 차관과 수하일 모하메드 알 마즈루이 아랍에미리트 에너지산업부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, 김종갑 한전 사장과 알 나세르 바라카원컴퍼니(BOC: Barakah One Company)사장이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.

○ 이번 양해각서는 해외원전시장에서 원전 건설, 운영·정비뿐만 아니라 재원조달·투자, 현지화·인력양성 등 원전사업 전 분야에서 양국 간 구체적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.

□ 이번 제3국 공동진출 협력 양해각서 체결은 그간 한-아랍에미리트가 구축해온 원전 전주기 협력을 제3국 원전시장 공동진출로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.

○ 한국의 원전 기술력과 원전 설계 · 시공 · 운영상 경쟁력을 아랍에미리트가 그간 자국 내 대형프로젝트에서 축적해온 경험, 지식과 결합하여, 구체적 협력모델을 마련할 방침이며, 이를 토대로 원전수출 기회를 양국 공동으로 적극 모색해나갈 예정이다.

□ 아울러, 정승일 차관은 알 마즈루이 아랍에미리트 에너지산업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현재 추진 중인 바라카 원전협력 현황 등에 대해 논의하고,

○ 바라카 원전의 성공적 준공과 안전한 운영을 위해 양국 원전 업계 간, 정부 간 지속적 협력을 당부했다.

○ 또한, 산업투자협력 양해각서('19.2월 체결)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반도체 및 수소경제, 석유 및 가스 프로젝트 분야의 양국간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했다.

□ 한편, 정 차관은 9.9일(월) 바라카 원전 건설현장을 방문해 공정현황을 점검하고, 현장근무 임직원들을 격려했다.

○ 정 차관은 원전 건설현황 보고와 원자로·주제어실 등 원전시설을 점검하는 자리에서, 바라카 1호기의 성공적 준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, 아랍에미리트 측의 운영준비도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.

끝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수출진흥과 박혜영 사무관(☎ 044-203-533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